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절 앞두고 입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질환으로 향후 며칠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호흡 곤란을 호소해온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바티칸시국에서 열린 수요일만 알현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얼굴을 찡그리며 차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7월 대장 수술을 받은 후 제멜리 병원에 10일간 입원했다. 교황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 달 전에는 심한 감기로 일부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 교황청 관계자는 향후 부활절(4월9일) 등 가톨릭교회의 분주한 기간에도 교황의 일정 변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호세 H. 고메즈 로마 가톨릭 LA 대주교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할 것을 공식 성명을 Twitter에 제안했다. 고메즈 대주교는 성명에서 성모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LA로 캠퍼스 이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이 UCLA 인근에 있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로 캠퍼스를 이전한다.

CST 측은 최근 동문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장소를 이전해도 현재 학위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학교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50주년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ST는 1885년 설립됐으며 현재 한인 이종오 박사가 부총장을 맡고 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마28:16-20)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의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며,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빈 무덤이 이를 증거합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와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2. 누가 부활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요11:25-26).

예수 이전에 죄 값으로 인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라고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3.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고전 15:51-53)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치 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믿음대로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4. 지금이 어느 때일까?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속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때에 살고 있다(요14:2-3).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바로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5.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5:9, 요13:34-35, 살전5:16-18).

둘째,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절개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의 절개 잘 지켜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고난을 이기고 천국을 준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바울은 빌3:11-14에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꿏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셋째,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에 접붙인 장미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속에 부

활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요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물질 중심의 삶에서 신앙 중심의 삶으로 현재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마 28:18-20). 비겁쟁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증거 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담대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에 미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의 보고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상민 목사-
그래픽=shutterstock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